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규격 (ISO 26000)의 동향과 고찰

박 성 현*

〈目 次〉

요약	IV. UN 글로벌 협약
I. 서 문	V. 지속가능성 보고서
II. ISO 26000의 태동 과정	VI. ISO 26000의 윤곽
III.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의 G3 가이드라인	VII. 끝나치며

요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O))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 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SR의 태동과정을 살펴보고, CSR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을 먼저 소개한다. ISO는 CSR에 관련된 표준을 ISO 26000으로 명명할 예정이며, ISO 26000에 담겨질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하여 예측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지구촌은 급격히 국제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표준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주는 영향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적 표준에 대비한 표준경영을 하루 빨리 준비할 때이다. 이 글이 ISO 26000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는 조직에게 유용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제표준화기구, 표준경영, ISO 26000

I. 서 문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 표준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기업경영 관련

* 서울대학교 통계학

표준에서 더욱 그러하다. 서구 국가들이 주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1987년에 제정한 품질경영 시스템인 ISO 9000 시리즈에 대해서, 그리고 1996년에 제정된 환경경영 시스템인 ISO 14000 시리즈에 대해서도 초기에 대응이 늦어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 인증기관에 막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국제적 경영환경에서도 뒤진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 후 우리 기업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이들 경영표준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하고 지금은 약 4만개의 국내 업체가 이들 국제규격에 잘 적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심각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국제규격이 만들어 지고 있다. 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된 기준으로 ISO 26000 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말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ISO 26000은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국제 상거래 표준으로 인정되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CSR은 기업이 투자자와 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방침이 윤리적인지,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과정에서 환경 파괴, 제품책임, 인권유린의 소지는 없는지, 지역사회와 국가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등을 포괄하고 있다. ISO 26000 국제규격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표준경영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정보를 주기 위하여 이 글을 소개한다.

CSR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향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경에 ISO 26000이 발표되면 좀 더 확실한 정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의 대표적인 정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OECD는 사회적(Social)이란 단어를 쓰면 사회문제에 국한할 수 있다는 견해로 CR(Corporate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의 책임은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들이다. 만약 기업이 속한 사회가 번영하지 못하면 기업도 잘 될 수 없으며, 기업이 잘 안되면 사회의 일반적인 번영도 기약할 수 없다. (CR refers the actions taken by businesses to nurture and enhance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society. A business sector cannot prosper if the society in which it operates is failing and a failing business sector inevitably detracts from general well-being.) - OECD Web (참고문헌 1).

■ ICC(국제상공회의소): 기업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the voluntary commitment by business to manage its activities in a responsible

way) - ICC Web (참고문헌 2).

ISO는 사회적 책임 범위에 일반 조직이나 정부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Corporate)'이라는 단어를 빼고 SR(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II. ISO 26000의 태동 과정

CSR과 관련된 최초의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다국적기업을 위한 모범적인 행동 규범으로 1976년에 채택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며, 이 가이드라인은 2000년에 개정된 바 있다 (참고문헌 3). 그러나 본격적인 CSR 국제규격의 준비는 1999년에 UN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이 출범시킨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란 조직이다. GRI는 기업이 스스로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윤리성 등에 대한 실천성과를 투명하게 정리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종용하였다. GRI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1999년에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2006년에 'G3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참고문헌 4). 'G3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는 전략과 분석, 조직의 프로파일, 보고를 위한 주요 내용변수, 조직의 지배구조 및 약속과 참여, 성과 지표 등의 5장으로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지표로 환경, 인권, 노동관행과 좋은 일자리, 사회, 제품책임, 경제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성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GRI 활동에 힘을 실어준 것은 2000년 UN이 발표한 'UN 글로벌 협약(UN Global Compact)'이다. 이 협약은 당시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의 제안에 의하여 만들어진 21세기에 필요한 기업의 공동가치와 원칙으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및 부패방지의 4개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기업이 이행하여야 할 10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5).

ISO 9000 시리즈와 ISO 14000 시리즈를 제정하였고 이를 관리 유지하고 있는 ISO는 G3 가이드라인과 UN 글로벌 협약에 기초하여 현재 ISO 26000을 준비하고 있다. 2002년 ISO 기술관리부(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의 주관 아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문그룹(ISO Advisory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을 조직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자문그룹은 2004년에 사회적 책임 실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ISO는 표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작업반(ISO/SR)을 2005년에 구성하였으며, 이 작업반의 선진·개도국 공동의장국으로 브라질과 스웨덴을 선정하였다. 이 작업반은 2005년부터 사회적 책임 가이

던스(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까지 5차례 회의를 갖고 최종안 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UN의 글로벌 협약 사무실(UN Global Compact Office)은 CSR에 관한 국제규격 제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에 ISO와 국제표준제정 관련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에는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와 더불어 ISO/SR 작업반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UN의 강력한 지원 아래 ISO는 표준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2009년에는 새로운 SR 국제 표준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UN 글로벌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G3 가이드라인, UN 글로벌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Ⅲ.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GRI)의 G3 가이드라인

G3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는 5개장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 G3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

장	내용
1장: 전략과 분석 (strategy and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자로부터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전략에 관한 선언 - 조직의 생존에 주는 중요한 영향 요소, 위험성, 기회 등에 관한 설명
2장: 조직의 프로파일 (organizational prof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이름, 조직의 본사 위치, 종업원 수, 판매액 등 - 주요 제품, 서비스, 브랜드. 조직은 왜 이러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설명. - 조직의 운영 방법 - 소유의 성격과 법적 형태 - 제품/서비스의 시장 구조
3장: 보고를 위한 주요변수 (report param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하는 정보의 유효기간 - 보고서 제출 시기 및 간격 - 보고서의 담당자와 연락처 - 보고서 작성 과정과 내용, 제약 사항 등
4장: 조직의 지배 구조 및 약속과 참여 (governance, commitments and eng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이사결정위원회(혹은 이사회)의 기능을 포함한 조직의 지배 구조 - 이사장과 최고경영자의 관계 - 이사회와 구성과 인원 등 - 이사회에 주주나 종업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채널에 관한 설명 - 이사회에서 의견의 대립을 풀어 가는 과정 - 이해관계자(stakeholder) 그룹의 식별과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등

〈표 1〉 G3 가이드라인 구성 요소(계속)

장	내용
5장: 성과 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environmental) - 인권(human rights) - 노동관행과 좋은 일자리(labor practices and decent work) - 사회(society) - 제품책임(product responsibility) - 경제(economic)

위의 성과 지표 중에서 환경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조직의 환경적 차원이 생태계, 토지, 공기, 물 같은 생물 및 무생물 등의 자연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직이 사용하는 투입량(자재, 에너지, 물 등)과 산출량(대기배출, 폐수, 폐기물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생물다양성, 환경법규 준수, 제품/서비스의 영향, 운송, 그리고 유형별 전체 총 환경보호 지출과 관련된 정보 등이다. 기타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IV. UN 글로벌 협약

지난 2000년에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에 의하여 제안된 국제 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4개 분야, 10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한다.

(2) 노동기준(labo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집단 교섭권을 인정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한다.

원칙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 환경(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 8: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에 숭선수범한다.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한다.

(4) 반부패(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008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120개국 5,216개의 기업 및 단체가 글로벌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참여 단체는 기본 원칙의 구체적 이행 사례를 2년에 한번 이상 글로벌 협약 웹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007년 3월 말까지 글로벌 협약에 가입한 국내 기업 및 단체의 수는 29개에 불과하였으나, 반기문 UN 사무총장 취임 이후, 국내 가입 기업 및 단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6월 19일 현재 119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페인(503개), 멕시코(369개), 브라질(232개) 등에도 뒤쳐져 있어, 보다 많은 기업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V. 지속가능성 보고서

G3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GRI는 기업이나 조직이 스스로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윤리성, 지배 구조 등에 대한 실천성과를 정리하여 '지속 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속 가능(sustainable)'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2년에 개최된 인간 환경에 관한 UN 회의에서 '지구의 날'을 선포하면서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리우 환경선언'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리우 환경선언에서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자연자원과 환경을 이용하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이용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라고도 흔히 부른다.

기업이나 조직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면 일반적으로 GRI에 등록하며, 2007년 말까지 GRI에 등록된 조직의 수는 누적으로 보면 전 세계 50여 개 국에서 약 3,000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2007년까지 30 여개의 조직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GRI의 웹(참고문헌 5)에 의하면 2008년도에 7월말까지 전 세계에서 GRI에 등록된 조직의 수는 모두 260개이며,

이 중에서 한국에서 등록된 조직은 모두 9개로, Hynix, Hyundai Insurance, Kia Motors,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 Kospo, KT&G, NongHyup, Shinhan Bank, SK Telecom 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6). 국내에 경영시스템 관련 인증 현황을 보면 ISO 9001이 발급건수가 누계로 3만 이상이며, ISO 14001이 7천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CSR에 관심을 나타내는 조직의 수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한 조직은 이 보고서를 검증 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sustainability report assurance)이란 보고 조직이 작성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내용 및 관련 활동을 제3자 검증기관이 일련의 검증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 및 운영시스템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활동이다. 한 조직이 작성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법은 스스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 자가 검증(self-checked) 하거나, GRI에 의뢰(GRI-checked)하여 검증 하거나, 아니면 제3자 기관에 의뢰(third-party-checked)하여 검증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GRI에 의뢰하거나 제3자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제3자 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 등이 대표적인 기관이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중에서 특히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보고서는 한국서부발전(참고문헌 11)과 KT(참고문헌 12)의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의 보고서는 전력산업 특성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 에너지 안보, 에너지 이용과 지구환경 노력, 환경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경영, 윤리경영 등에서 타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KT의 보고서는 고객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고객가치경영, 노사협력과 복리후생 등에 초점을 맞춘 휴먼경영, IT 공익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공헌, I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경영 등에서 탁월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VI. ISO 26000의 윤곽

ISO 26000의 표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작업반(ISO/SR)이 2005년에 구성되어 그 동안 1차 회의 (2005년 3월), 2차 회의 (2005년 9월), 3차 회의 (2006년 5월), 4차 회의 (2007년 1월), 5차 회의 (2007년 11월)를 거치면서 설계규격서가 작성되고, WD (working draft)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이 규격에 대하여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수천 건의 의견 (comments)이 접수되어 이의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작업반 회의에는 78개 국가와 37개 관련 기구에서 3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

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전문가 참여 비율이 약 6:4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작업반의 2차 회의에서 확정된 설계 규격서는 다음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표 2〉 ISO 26000 국제규격에 대한 설계구조와 내용

장 번호	제목	내용
0	서론 (introduction)	- SR의 원칙과 실행에 대한 국제 표준의 필요성 - 이 표준은 인증, 규제, 계약 등의 용도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발적 표준 -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표준
1	적용범위 (scope)	- 본 표준에 포함하는 제목의 정의 - 제한/제외 되는 사항을 식별
2	인용문헌 (normative reference)	- 관련된 문헌의 목록
3	용어와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 관련된 용어의 정의
4	조직이 운영하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 (contexts)	- SR의 본질과 실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 조건, 이슈 등을 설명. - SR의 개념, 조직에의 적용 방법 등을 설명.
5	사회적 책임의 원칙 (principles)	-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들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소개.
6	사회적 책임 이슈들에 대한 가이드스 (guidance on SR issues)	- SR에 포함하는 핵심이슈 관련 행위 또는 기대에 대한 것들을 설명.
7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조직에 대한 가이드스 (guidance on implementation)	- SR 관련 이슈들을 조직에 통합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가이드스를 제공.
8	문헌목록 (biography)	- SR 관련 문헌의 목록 제공.

〈표 2〉에서 중요한 사항은 조직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책임의 핵심이슈(core issue)들이다. 이 핵심이슈들은 GRI의 G3 가이드라인과 UN 글로벌 협약의 10대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1) 조직의 지배 (Organizational governance)
- (2) 인권 (Human rights)

- (3) 노동 관행 (Labour practices)
- (4) 환경 (Environment)
- (5) 공정 운영 관행 (Fair operating practices)
- (6) 소비자 이슈 (Consumer issues)
- (7) 지역사회 기여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and society)

〈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기존의 경영시스템인 ISO 9000 시리즈 (품질경영 시스템)이나 ISO 14000 시리즈 (환경경영 시스템)과 일정 부분 겹치는 분야가 있다. 따라서 이미 기존의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업체들은 ISO 26000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품질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참고문헌 7)에서 5.4.1절인 '품질 목표'에 언급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만족을 위한 품질목표 설정'을 이용하여 G3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성과지표들(환경, 인권, 노동관행과 좋은 일자리, 사회, 제품책임, 경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나열하여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환경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참고문헌 8)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내의 품질경영 연구자들도 최근 활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 자료로는 김광섭·이병룡(2007), 김종렬(2008) 등을 들 수 있다.

VII. 끝마치며

국내 기업들은 CSR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하는 기업호감지수(CFI)는 도리어 떨어지고 있으며 (2006년도의 50.2점에서 2007년도는 46.6점), 2007년도에 기업호감지수를 구성하는 5개 부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나쁜 부문이 사회공헌활동 (35.3점)과 윤리경영(17.7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CSR를 단순한 사회봉사 활동이나 기부쯤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CSR은 기업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기업의 시급한 경영전략 활동이 될 것이다. 아직도 많은 기업이 ISO 26000으로 지정되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이 기업에 권장하는 표준이므로 의무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히 안이하고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표준이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눈에 안 보이게 기술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표준의 내용은 국제적 조직 활동의 트렌드(trend)라고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옳은 길이며, 빨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이미 OECD에

가입한 국가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만을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 모든 조직체가 우리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내년에 ISO에 의하여 국제규격으로 발표될 ISO 26000의 평가지표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G3 가이드라인'에 기준하여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국제규격에 대비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기업에 따라서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라고 명명하여 출판하는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의 선도 기업들(삼성전자, KT,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KT&G, 대우증권 등)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새로운 국제규격의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순발력 있게 대응하여야만 ISO 9000이나 14000이 발표될 때와 동일한 허둥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기업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eb:
http://www.oecd.org/document/33/0,2340,en_2649_33765_1933025_1_1_1,00.htm.
2.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World Business Organization) Web:
http://www.iccwbo.org/home/business_society/B%20in%20Society%20Booklet.pdf.
3.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0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4.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Web: <http://www.globalreporting.org/Home>,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G3, 2006, Global Reporting Initiative.
5. UN Global Compact, 2000. 7. UN Headquarters.
6. 2008 GRI Reporters List,
Web: <http://gobalreporting.org/GRIReports/2008ReportsList>.
7. ISO 9001: 2000,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8. ISO 14001: 2004,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9. 김광섭·이병룡(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준과 기업보고에 관한 고찰, 품질경영학회지, 제35권, 제3호, p. 47-54.

10. 김종열(2008): ISO 26000 국제표준 어디까지 왔나, 품질경영, 한국표준협회, p. 28-31.
11. 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2007), 한국서부발전.
12. K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8), KT.